

‘포모나 칼리지’와 ‘UC 버클리’에 모두 합격했다면



▲ 포모나 칼리지 Carnegie Hall. 사진=facebook(pomonacollege)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의 자녀가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와 UC 버클리, 이 두 개 대학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대학을 최종 선택하겠습니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UC 버클리는 연구중심대학이고 학생 수가 3만 명에 이른다. 반면 LA에서 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 클레어몬트에 있는 포모나 칼리지는 학부 중심대학(리버럴 아츠 칼리지)으로 학생 수가 1,700명에 불과하다. 하나는 주립 대형 대학, 다른 하나는 사립 소형 대학이다.

이처럼 두 대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만큼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부모들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만약 한국 학부모라면 거의 대부분 UC 버클리를 선택할 것이다. 한국에도 명문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모나 칼리지라고 하면 우선 많이 낯설다. 미국에서 오래 산 한인 학부모들도 이 대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기다 한국 사람이라면 university와 College, 두 단어에 대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4년제 대학에는 university, 2년제 전문대학에는 College 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둘을 구분해 사

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의 두 대학에 동시 합격한 미국 학생 혹은 그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대학 비교 사이트인 Parchment(parchment.com)는 두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대학에 등록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그랬더니 포모나 칼리지를 선택한 학생이 74%, UC 버클리를 선택한 학생은 26%였다. 포모나 칼리지를 선택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합격률에서 포모나 칼리지는 7%, UC 버클리는 14%로 포모나 칼리지가 합격하기 더 어렵다.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GPA)는 포모나 칼리지 4.04, UC 버클리 3.89로 역시 포모나 합격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 4년 졸업률도 포모나 칼리지 86.5%, UC 79.0%로 포모나가 더 높다.

이처럼 몇 가지 요소를 비교해 봐도 객관적으로 포모나 칼리지가 UC 버클리보다 좋은 대학,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UC 버클리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에 주민으로 저렴한 학비 때문에, 혹은 거주지 인접성이나 학과 특성 등의 이유로 버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UC 버클리의 2022년 학부과정 등록금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의 경우 14,226달러, 주외 거주자의 경우 43,980달러였다. 이에 비해 포모나 칼리지의 학비는 56,686달러였다.

미국에는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다. 매년 자체 선정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 순위 사이트(usnews.com/best-colleges)만 방문해도 한인들에게 생소한 미국 명문대학들의 이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 넘는 수업 선택 말아야



고교 재학 중 유독 한 분야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가인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 경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노력해도 최고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클래스를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과 능력에 비추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수업들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레귤러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수업에서 'C'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 어려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른 수업들도 성적이 부진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선택했지만 하다 보니 고전할 경우 교사나 카운슬러,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는 튜터를 고용해줄 수 있고, 친구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미팅을 잡을 수 있다. 아무도 내가 혼자 고전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칸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다. 또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나처럼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현실적인 대학 지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를 정할 때는 나의 강점과 능력에 대해 현실적이 돼야 한다. 아이비리그 등 종합랭킹 20위 이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 분야에서 강력한 성적을 요구한다. 한 분야에서 고전했다고 해서 이런 탑 대학들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최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덜 도전적인 수업으로 대체했다면, 지원시 불리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격을 희망한다면 내가 약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특출나게 뛰어나야 할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대학에 가서도 같은 과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과목을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배가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스케줄로 전체 성적을 망칠 위험을 피하고 과외 활동이나 인간 관계도 함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